



“국내외산 녹용 차이, 눈으로 확인하세요”

- KBS 바자회 참여, 국산·수입녹용 비교전시 -

본회는 지난 12월28일 KBS에서 생방송으로 실시한 “나눔, 농촌에게 희망을 이웃에게 사랑을”이란 제목의 바자회에 참석, 국산녹용 및 양록산물을 전시·홍보하는 시간을 갖았다.

본회는 이날 전시 및 절편 국산녹용, 녹중탕 등을 전시·판매하고 녹중탕 및 녹용차 등을 시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국산녹용과 수입녹용을 물에 넣어 풀리는 모습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며 국산녹용이 물에 잘 풀린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국산녹용으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녹용차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더불어 본회는 이날 양록자조활동자금을 통해 제작된 국산녹용 우수성 소비홍보 전단지 3만부를 행사장인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아울러 이날 판매된 수익금은 KBS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리포터가 생방송 중 녹용차를 마시는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국산녹용과 수입녹용을 비교한 모습

한편 본회 김수근 회장은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산녹용은 생녹용이든 건조 녹용이든 물에 담구면 빨갛게 녹혈이 우려나오는데 수입녹용은 몇시간을 물에 넣어봐도 녹혈이 우려나오지 않는다”고 설명, 수입산보다 국내산 녹용이 월등히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의 인터뷰가 생방송으로 KBS를 통해 방영되자마자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본회가 마련한 행사부스를 찾아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편, 이 과정에서 비교 전시를 위해 국산녹용을 담겨 녹혈이 우려나온 물을 순식간에 마셔버리고 도주한 사람이 발생하는 에피소드도 일어났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사무처 직원이 총동원되었으며 김수근 회장을 비롯해 황희록 부회장이 참석, 시민들에게 국산녹용의 우수성을 전파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한덕원**